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18일

| 제89회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

교사 충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C O N T E N T S

차 례

목회서신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목회서신	03
인 사 말	다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05
설 교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산다	06
예 배	89주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지방연합예배	09
교육자료1	온라인 교사교육, 교사ON	13
교육자료2	구약성서와 함께 읽는 요점정리	17

목회
서신
1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목회서신

감독회장 이 철

● 한국교회는 한 때 “지평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거의 모두 한국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음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교회를 살리는 길은 다음세대를 바로 세워야 가능합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목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체교회의 일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성장 동력을 잃고 정체되었던 교회학교에 활력을 찾고 우리 사회전반에서 진행되는 세속화의 과정을 복음의 영향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헌신해 온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살고, 나아가 다음세대를 바르게 세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교회학교 부흥의 열쇠는 교사

무엇보다 교사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은 교사를 발굴하고 세우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에너지인 믿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음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

육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어떤 유행을 쫓아다니는 것도, 다양한 교과과목을 가르치는데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장성함은 무엇으로 측정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은 지식이나, 학력성취 이전에 사람의 실존 속에 성숙한 사랑, 예수의 인격을 새겨 넣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을 찾아 교사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사를 세우는 교육의 필요성

사실 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이 있거나, 어떤 세상적 권위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지혜롭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한다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7)*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사를 세우는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척선교사였던 아펜젤러나, 스크랜턴모자선교사, 하디 선교사 모두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며 스스로 배우는 학생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면서 사람을 세운 분들입니다. 감격적이고 열광적인 성령의 활동의 체험을 통해 일상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누리며 가르쳐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교육의 선구자들이셨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를 이끈 개척선교사들의 모습에서 교사의 바른 자세, 교사를 세우는 교육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교회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사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방법(테크닉)에 집중하기보다 삶을 나누며 스스로 배우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맨 처음 이 땅에 교육의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제정하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교단적인 힘을 모아가는 모범교단인데 그동안 더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진흥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올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온전한 성장을 통해 희망의 출발점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말 2

다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교육국 총무 김 두 범 목사

해마다 가을이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습니다. 차츰 과일이 익어가고 오곡도 낫을 기다리며 폭우와 폭풍속에서도 수확을 기다립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0여 년 만의 폭우 앞에서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거센 바람과 폭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교회교육현장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유명무실하게 지내오던 진흥주일이지만 올해는 긴 공백이 있은 후 지키는 진흥주일로 기필코 특별예배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방연합예배로 드리고 아울러 교사집중세미나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통하여 각급 교사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교육국에서는 실제적인 교사 교육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교회마다 움추려 있는 다음세대 회복을 위하여 야심차게 '교회교육 컨퍼런스'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면서 9월 15일 이천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는 이미 특화된 아이디어로 검증된 교육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목회자가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시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디모데후서 4:2)

거센 풍파에도 꺾기지 않는 **오기**있는 교사는 모두 **성공**한 교사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교사이고 **성**경을 **공**부하려는 열정이 가득한 교사입니다. 이 오기있는, 성공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쁘게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런 교사들을 통하여 교회의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우리 감리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다짐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설교 3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산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

박용호 감독 (영생교회 담임목사 / 교육국위원장)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한 연구자가 서울시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중「선생님들의 1년간 독서량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물음에 교과서와 학습 지도서를 제외하고 1권 5%, 2권 19%, 3권 39%, 4권 13%, 5권 24%라는 응답이 나왔다. 1년 통 틀어 고작 3권의 책을 읽는 선생님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열 없는 학교는 죽은 학교다. 폭넓은 교양과 최신정보를 망라한 전문성이 교사의 인성(人性)과 함께 가장 중요한 덕목(德目)이 된다. 교육현장이 활기찬 학습(學習)분위기로 충만하려면 교사 스스로가 연구에 열중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교사 살아야 교육이 산다" (1995. 6. 3. 일자)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산다

한국교회 부흥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 1907년 '평양대부흥'과 1950~1970년대의 '주일학교'는 현재 한국교회 성장의 모판이 됐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저 출산으로 한국교회 위기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위기의 교회를 구할 대안은 무엇일까? "주일학교가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을 맛볼 수 있다"고 강조 한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학교이며, 어린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출처 : 기독신문. 2018년 8월 13일자 (장로회전국주일학교 교사 수양회))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주제 또한 감리교회 교회학교 부흥전략의 주제다. 어느 감독은 '선생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 주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 "교회학교의 어린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의 수고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강조하고 사도바울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으로 똑똑한 교사보다는 아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양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웨슬리안 타임즈. 2022. 1. 17. 뉴스)

상기의 내용들을 전제로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산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1. 교사의 직분은 목사의 사명이다

엡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

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는 오늘날 '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분으로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주일학교 자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이라는 말이 각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한 번씩 붙는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에게는 각각 붙지 않고 정관사 하나만 붙는다. 이것은 '목사와 교사'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사들 즉 교사들"(τοὺς ποιμένες καὶ διδάσκαλοι) 이것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본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 교회가 발전하고 기독교 교육이 전문화되면서 교사는 목회의 파트너쉽만큼 함께해야 할 직분이 되었다.

교사는 '선생' 또는 '가르치는 자'로 (행13:1, 고전12:28, 딤후1:11)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 믿고 순종하게 하는 자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로서 사역하되 목회자의 파트너쉽으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고전12:28)

또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6:6-7) 라는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도 교사로서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서적으로 보면 부모가 최초의 교사요, 목사가 둘째요, 교회학교 교사가 셋째로 교회를 세우고 다음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경륜속에 이루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마28:19-20)는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도들 역시 교사로 세움 받은 복음적 교사임을 알 수 있다.

2. 교사 발굴 및 세우기

대부분 교회는 교사를 발굴하는 기준점을 젊은이들에게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아이들과 눈 높이가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순발력이 뛰어나서 젊은 교사들이 많으면 행사나 진행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 외에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젊어지는 교회학교를 꿈꾼다. 그러나 젊은이들만으로 교사를 발굴하여 교회학교를 맡길 경우 생기는 리스크는 많다. 교사로서의 검증을 거친 후에 사역하게 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세례받은 것으로만 교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카페들이 이윤추구가 아닌 문화가 되면서 수 많은 바리스타들이 양산되어 어디를 가나 카페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고객들은 한번 가보고 맛이 없거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가지 않아서 하루에도 수 많은 카페들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학교의 상황이 그렇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면 영혼과 미래를 맡기는 교사는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의 기준이나 원칙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교사를 발굴해야 하는가?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궁핍한 논리로 대신하기에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재미 없는 교회학교 배울게 없는 교회학교 영혼없는 교회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훈련과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세미나나 대회는 이제 그만하고 착실한 과정을 만들어서 준비된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단이나 연회 혹은 지방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다 해봤다는 식의 변명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사발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자 발굴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3년이라는 시간과 함께하며 전인적인 훈련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사건으로 사도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 놀라운 부흥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 발굴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느리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제자 발굴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교회는 분명한 철학과 기도를 통해 원칙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직분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찾아 다니셨다. 사람을 찾아 나서라.

셋째,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선정하셨다.

넷째, 순종하고 헌신 할 사람을 택하셨다.

3. 교사 교육, 어떻게?

전쟁의 승패는 뛰어난 장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그가 어떤 타입의 장수인가는 지장인가 용장인가 덕장인가의 타입을 말하지만 한 사람의 뛰어난 전략가는 백만대군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는 이미 인류역사에 가장 뛰어난 스승이시고 전략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며 이미 그 모든 방법을 보여주셨기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대안적인 방법만 찾다보니 혼란에 빠진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첫째, 내 안에 있는 불을 옮겨 붙여주는 것이다.

내 하고 싶은대로 하면 교육은 의미가 없다. 청솔가지가 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안되고 연기만 난다. 사모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면 불을 붙이려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둘째, 말로만 아니라 함께하며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하나로 묶여 있는 사역적 은사로 기록된 것은 목회적인 사역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분이 목회적 파트너십으로 위임하려고 한다면 코칭을 통해 함께하며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속에 있는 것을 고백이 될 때까지 질문하며 교육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위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부모 교육을 다 배우고 학위를 가져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법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안다면 그는 누구라도 교사의 자격이 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즈음하여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교회학교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아멘

예배 4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지방연합예배

박미경 교수 (양광교회 / 호서대학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오랜 시간동안 교육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교사의 자질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좋은 교사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교사의 영향력은 다음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좋은 교회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를 세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교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주일학교 조직 안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과'를 설치할 것을 1930년대에 이미 권고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덕영 목사(1901~1950?)입니다. 그는 신앙심 깊은 성인들이 교사직에 헌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교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사, 무릎으로 서는 교사, 애정과 관심을 담뿍 담은 교사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교사교육을 통해 효능감 있는 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성도의 교사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직임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모든 먼저 난 자가 다음 세대의 교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교회 차원에서 교사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교사를 세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89주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여 지방마다 교사의 중요성 및 전 세대가 교사로 세움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예배 전 환영: 지방교역자들과 각 교회 교회학교 교육부장님들이 예배당 입구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환영 인사를 한다.

예 배 인 도 ..... **지방 교육부 총무**

주 악 ..... **반 주 자**

예 배 부 름 ..... **인 도 자**

찬 양 ..... 하나님은 우리들의(223장) ..... **다 함 께**

1.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딸로 삼아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2.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3.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전파 사명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4.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기 도 .....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장**

살아계신 하나님! 89주년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고, 그 가르침으로 삶의 변화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맡은이(세대별 대표자)**

1. 디모데후서 3:14-17 (노년부 대표자)
2. 신명기 6:4-9 (장년 대표자)
3. 다니엘 12:3 (청장년 대표자)
4. 갈라디아서 6:6-9 (주일학교 대표자)

특 송 ..... **지방 교회학교 학생들**

각 교회학교의 학생들로 연합찬양대를 이루어 찬양을 올려드린다.

설　　교 ····· “교사로의 부르심과 사명” ····· **지방 감리사**

영 상 송 출 ····· **맡은이**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한다.

기 억 나 눔 ····· **맡은이**

교사는 기억에 남는 제자와의 경험을 나누고, 교회학교 학생들(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은 인상 깊었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교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기회를 삼는다. 그 기억을 상징물을 갖고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축 복 기 도 ····· **맡은이 / 다함께**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축복과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교사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서 계신 선생님은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온전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사를 허락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밝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일상의 삶에서 매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사 온전한 배움이 있게 하소서.
모든 교사들의 삶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 물 증 정 ····· **지방 감리사/교육부총무/교회학교연합회장**

참석한 모든 교사들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봉　　헌 ..... **다 함 께**

오늘 드려질 헌금은 역사적으로 귀한 유산이 있는 순서를 기억하며 봉헌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진흥주일이라는 이름으로 1933년 시작된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모든 사람이 신앙교육의 진흥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1전(錢)씩 헌금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헌금은 신앙교육을 위한 교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봉 헌 기 도 ..... **맡은이**

찬　　양 ..... 진흥주일노래 ..... **다 함 께**

(배덕영 작사/565장 "예수께로 가면"에 맞추어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1. 여름은 다가고 가을이 왔네 산도 노래하고 물도 지저귄다
   떠돌던 운무는 멀리 사라지고 홀로 푸른 하늘 맑고도 높고나
2. 하늘이 맑으니 이내 마음 맑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네
   하늘이 높으니 이내 마음 높아서 주님의 온전함 받기를 원하네
3. 동무야 모여라 네 뜻을 이루자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이곳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배우라 네 원함 주께서 이루어 주리라

광　　고 ..... **지방 교육부총무**

파송의 말 & 축도 ..... **지방 감리사**

"모든 자들을 교사와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후　　주 ..... **다 함 께**

2부 특별 교사세미나

본 자료집 13면 이후 강의영상 및 교사교육자료를 참고.

교육 자료 1 5

온라인 교사교육, 교사ON

좋은 교사가 좋은 교회학교를 만든다

백 영 목사 (세교교회)

교회학교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란 질문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 강의 안에서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좋은 교사들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들안에는 아이들에 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 예수그리스도를 전해주려는 그런 좋은 교사가 좋은 교회학교를 만든다. 이 영상을 통해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교사들을 향한 위로와 칭찬을 전한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

이성재 목사 (한올교회 / 온양한올중고등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착한척하느라 힘든 교사들은 아이들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배워보자. 아이들과 대화에서는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대화를 열어야 아이들의 마음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느낌을 전해보자. 느낌은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지름길을 통하여 교사는 먼저 내마음으로 갈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연결되어 아이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

강의영상 모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

장 미 팀장 (그로잉맘 육아상담 팀장)

교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기질'이라는 것을 통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 보자. 이 강의에서는 아이들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빨강, 파랑, 노랑, 분홍, 초록 다섯 가지 색깔 블록으로 설명한다. 다섯까지 기질블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유사한 특성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왜 똑같은 일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지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 될 것이다.

뇌 과학으로 알아보는 청소년의 이해와 소통

백현주 교수 (성균관대학교 / 전두엽프리즘 소장)

내가 마치 동물원에 와있는 기분이지 뭐야라고 엄마가 말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다.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는 이유 없는 반항기인 이 시기는 뇌과학자의 시각으로는 당연한 시기이다. 뇌의 가장 앞쪽인 전두엽은 인간의 고유한 뇌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뇌라는 별명이 있다. 청소년기는 전두엽의 리모델링 상태이고 뇌의 활성화 과정이다. 이 전두엽 리모델링 과정에서 청소년은 상상의 관중이 있고, 시각이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논리로 방어를 하느라 까칠하다. 호르몬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변화의 시기에 맞춰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함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강의 안에서 찾아보자.

강의영상 모음

슬기로운 영성생활

최은택 목사 (서울은혜교회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혼란스러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맡겨진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귀하에 쓰임 받는 교사로 세워 질 수 있을까? 자신의 영성관리를 잘 해야한다. 기존에는 '교회'에만 잘 나가도 어느 정도 영성관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각자 스스로 영성관리를 해야 한다.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성의 내용은 항상 변하지 않지만 형식에서의 변화는 필요하다. 이 강의를 통해 홀로(Alone), 함께(Together), 온라인(All line)으로 슬기롭게 영성관리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

우리에겐 생태 감수성이 필요해

김신형 목사 (자연드림교회)

교회에서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가 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후변화가 주는 위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교육은 곧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환경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신앙운동이며 세계관을 바꾸는 정신운동이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생태운동,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생활운동이다. 이것을 위해 생태 감수성이 필요하다. 강의를 통해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작하며 무엇을 나눌지 알아보도록 하자.

강의영상 모음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익상 목사 (성은교회 / 성서연구소 비블리아)

성경을 읽다보면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왕위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함 때 남쪽은 유다와 북쪽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뉜다. 르호보함을 왕으로 삼은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만이 남았고 나머지 열 지파는 여로보함을 따랐다. 열왕기하를 읽다보면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복잡하다. 영상을 통해 이 복잡한 왕들의 긴 이야기를 그림과 도표로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왕들의 업적이나 과오, 그리고 그 시기에 활동한 예언가들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담겨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려웠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강림절, 잃어버린 반쪽의 의미를 찾아서

이진경 교수 (협성대학교)

강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림절의 의미의 절반이다. 강림절은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절기에서 나아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강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다. 교회는 새로운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는 각오와결심을 새롭게 해야한다. 그것은 강림절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성찰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야말로 강림절에 갖추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다. 강의를 통해 우리의 삶속에서도 마라나타(주여 오시옵소서)를 고백되길 소망한다.

교사세미나 강사 필요시 교육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2-399-3958

교육 자료 2 6

구약성서와 함께 읽는 요점정리

이익상 목사 (성은교회 / 성서연구소 비블리아)

율법서

구약성경은 39개의 책으로 작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각 권 책의 구분과 책들을 큰 단위로 묶어서 다시 구분하는 기준들은 기독교의 종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서	전기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후기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들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들
성문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애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로 묶는 구분은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이 다섯권의 책이 구약성경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율법서야, 오경이야?

'율법서'는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서'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라'(תורה)를 번역한 것이고, '오경'(다섯개의 경전)은 그리스어 '펜타튜코스'(πεντάτευχος)를 번역한 말입니다. 비록 '오경'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직역을 하면 '다섯개의 그릇'이라고 해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백성들의 역사를 다섯개의 그릇에 담아 놓았다는 이해입니다.

2. 율법서를 이해하는 여러 개의 눈

① 모세의 일생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의 두루마리를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하였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고, 또 모세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관점에서 다섯개의 두루마리를 이해하자면, '오경'은 모세의 조상의 이야기(창세기)와 모세의 이야기(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엮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모세 오경'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교회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②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하는가를 알려준다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다섯개의 두루마리를 '율법'(가르침)의 내용들이 넘쳐 납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율법'과 '이야기'라는 두 개의 장르가 뒤섞여 있습니다. 율법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말라'는 명령과 법령들이 있고, 이야기로 분류되는 부분은 그 율법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법을 지켜야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그 율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켰고 어겼는가(이야기로 들려주는 율법)를 보여준다는 관점으로 율법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③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창세기 13, 15장). 그리고 그 땅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모세의 인도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개의 두루마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라는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 다섯 개의 두루마리가 하나의 권위있는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 시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 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던 시기에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는 매우 소중했을 것입니다.

④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죄와 그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선조들의 역사를 되짚고, 잊고 살았던 율법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며, 율법을 지키며 산 선조들이 받았던 복과 어기며 산 이들이 받았던 심판들을 반성하며 기록한 잊고 있었던 율법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는 다양한 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서라 불리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그릇)에 이야기와 율법을 담으시며 위의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서는 "이러저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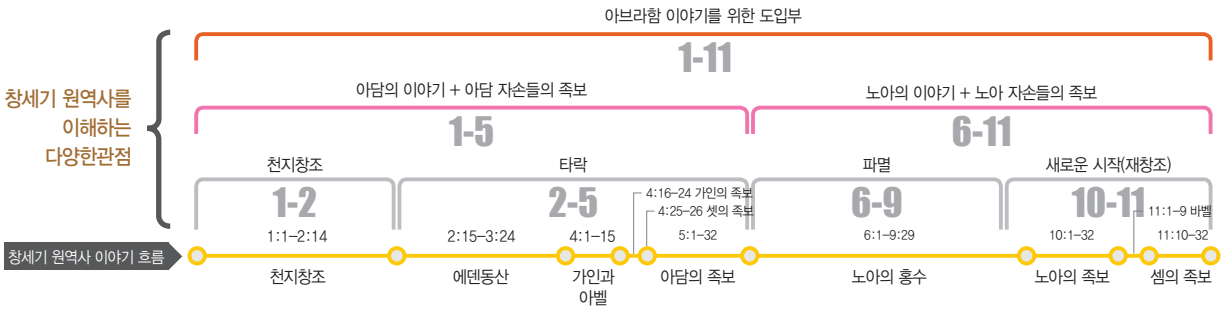
3. 창세기-공동체를 세우는

'창세기'를 그대로 풀어 쓰면 '세상을 창조하던 때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창세'라 불리는 책의 원래 이름은 '베레쉬트'(בראשית)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한 처음'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아가던 한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연대로 측정이 대략적으로 가능한 부분(창 11:27-50:26)과 역사의 연대로 그 때가 언제인지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창 1:1-11:26)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창 1:1-11:26)을 원역사(Prehistory 또는 Protohistory)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창 1:11-11:26	**역사 시대** 창 11:27-50:26

원역사의 이야기(창 1:11-11:26)는 그 구조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①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위한 도입부로 볼 수도 있고, ② 아담(A)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B), 그리고 노아(A')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B')로 구성된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③ 창조-타락-파멸(심판)-재창조의 구조로 심판과 구원의 순환 구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원역사]

창세기 역사시대의 이야기(창 11:27-50:26)는 대략 기원전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됩니다(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약 215년의 역사를 묘사

하고 있는 이 부분의 주요인물들은 ① 아브라함과 사라 ② 이삭과 리브가 ③ 야곱과 레아, 라헬 ④ 그리고 요셉-아스낫 가정입니다. 이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 파묻혀 있어서 큰 무게감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역사시대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터전을 일구며 살았고, 약속의 백성의 공동체가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묘사합니다.

[창세기 역사 이야기]

4. 출애굽기-예배를 회복하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이유는 율법서의 두번째 두루마리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 이름을 '엑소도스'(Ἔξοδος)라고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어의 뜻은 '길 밖으로'입니다. '탈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루마리를 부르는 히브리어 이름은 '쉬모트'(שמות)입니다. 이 말은 '이름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시작하는 이 두루마리는 야곱의 후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방 민족들(출 12:37-38)이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① 이집트에서의 탈출 ② 광야 행군 ③ 시내산에서 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 묶음(1-15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박해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파라오의 박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1-6장), 열 가지 재앙(7-11장),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들(12-15장)이 소개됩니다. 둘째 이야기 묶음(16-18장)은 광야를 통해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곳이며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야곱의 자손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시려고 시내산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셋째 이야기 묶음(19-4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성막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만들

면서 잊고 있었던 예배,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예배를 회복하는 두루마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5. 레위기-예배를 세우는 두 기둥

'레위기'라는 이름은 이 두루마리의 그리스식 이름인 '레위티콘'(Λευιτικό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 두루마리에서 레위인들은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레위기의 법률 중에 레위인의 규정을 설명할 때 잠시 한번(레 25:32-33) 언급될 뿐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가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제사장들의 율법(가르침)'이라는 뜻에서 '토라트 코하님'(תורת כהני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부르는 원래 이름은 '바이크라'(ויקרא)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시작한 첫 단어이면서 그 번역은 '그가 (여호와께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의 장소인 거룩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예배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하는 두루마리의 이름입니다.

[레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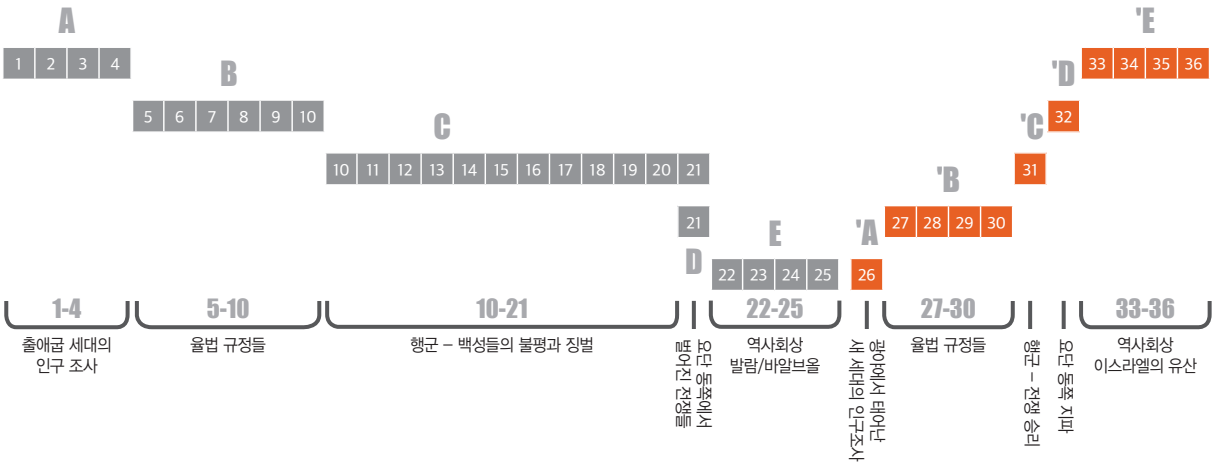
레위기는 그 구조를 크게 ① 제사장에게 준 율법(레 1-16)과 ②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율법(17-27장)으로 나눕니다.

① **제사장에게 준 율법** 부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규정합니다. 그 규정에는 제사의 종류(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각 제의 때 제사장은 어떻게 인도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1-7장).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할 때 어떤 준비 예식을 거쳐야 하는지와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를 법령과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8-10장). 마지막으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의에 나올 때 갖추어야할 자격(정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11-16장)

②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율법** 부분은 흔히들 '성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결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켜야할 규율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성결법전'입니다.

6. 민수기-처음부터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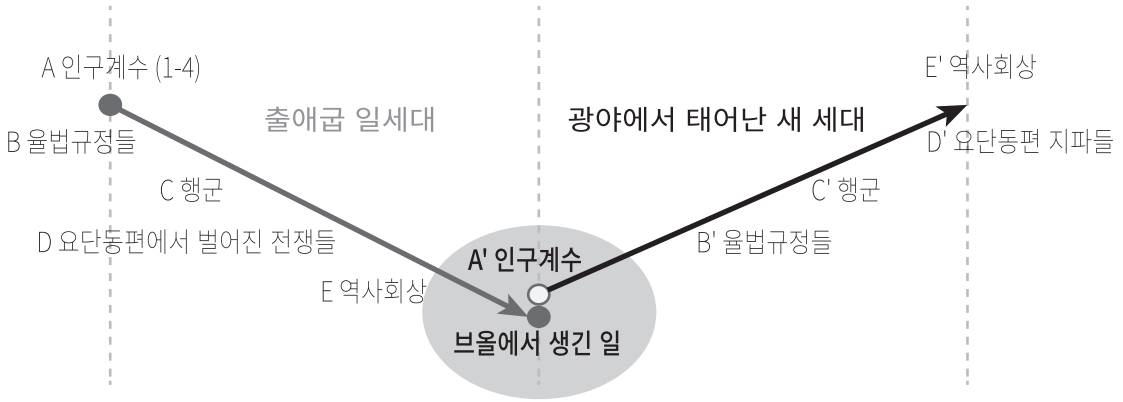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 네번째 두루마리를 부르는 그리스어 성경 '아리스모이'(Ἀριθμοί. 숫자들)를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두루마리의 히브리식 이름은 "베미드바르"(במדבר)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광야에서'입니다. 두루마리의 이름만으로도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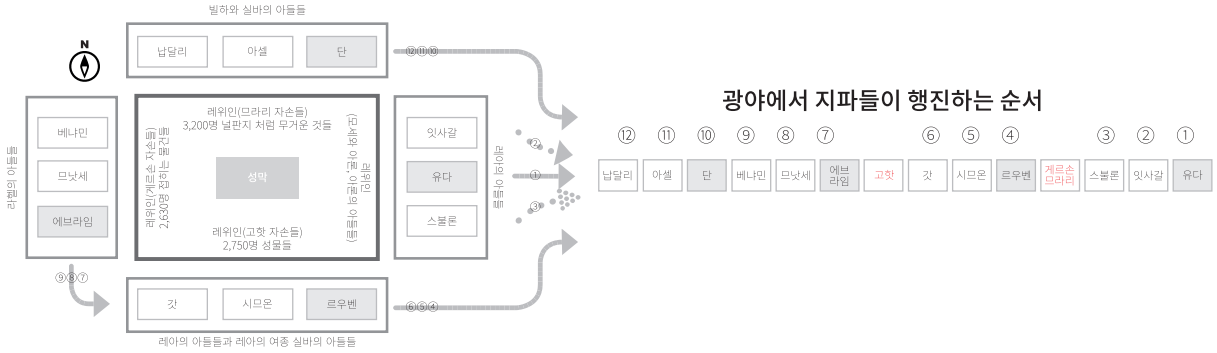
민수기는 출애굽 세대(출애굽 1세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출애굽 2세대)로 바뀌어 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1장)로 시작해서,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와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는 율법들(5-10장),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에 생긴 일들(10-21), 발람과 바알브올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22-25장)의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25장을 기준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26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1세대의 이야기 순서와 동일합니다.

2세대의 이야기가 1세대의 이야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내리막길을



[민수기]

걸었던 1세대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두루마리에서는 25장과 26장은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세대 교체의 전환점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벌인 죄악(이방 여인들과의 음행, 우상숭배)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그럼 26장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두루마리는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역꾸역 다시 꾸려서 광야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마치 1세대들이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그 수를 헤아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남자 회중의 수를 통계 내도록 하고, 그 이후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받은 율법을 다시 받고 경험해야했던 일들을 다시 경험해야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1세대들은 점점 내리막길을 달렸으나, 2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가나안을 향한 희망과 기대감이 현실에서 좌절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②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③ 다시 시작하는 새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민수기)가 주는 대답은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두루마리가 민수기 입니다.

7. 신명기-복습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 하여 기록한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서의 내용 중 시내산에서 율법들과 광야에서 받은 율법들을 되풀이 하는 모세의 말이 신명기 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신명기 두루마리의 이름은 ‘드바림’(דברים, 말들)입니다. 그럼, 왜 되풀이하여 이 율법을 가르쳐야했을까요? 율법을 잊지

말라고 되풀이하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새세대(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남긴 연설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는 세 개의 모세의 연설(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첫번째 연설은 이스라엘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까지 오게된 여정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1-4장). 그리고 두번째 연설은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쉐마'가 바로 신명기의 십계명에 뒤를 이어 선포됩니다(6장). 특별히 12-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법전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신명기 법전의 구성이 십계명의 각론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한분 하나님이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신 12:5, 11, 21)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제의의 중앙화). 이 신학은 요시아의 성전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앞의 모든 두루마리들을 정리하는 복습서와 같습니다. 이 복습서는 후대 예언자들(예. 예레미야)과 역사가들(예. 열왕기)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언서

개신교의 예언서 구분과 전통적인(유대교) 예언서 구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예언서 구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예언서 구분에 따르면 예언서는 '전기예언서'와 '후기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전기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해당됩니다. 모두가 개신교의 구약성경 구분에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후기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들(호세아, 요엘, 아무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됩니다. 이 책들은 개신교 구약성경 구분에도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적인 예언서 구분을 따르자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예언서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때문입니다.

1. 예언자들의 역할

예언자들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다만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얻었던 복들과 율법을 어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받았던 심판들을 보여주는 참고서입니다. 예언자들의 역할은 과거의 역사들을 비추어 현재를 직시하게 하고, 당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럼 현재의 나(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미래)?"를 가르쳐 주는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이자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입니다.

2. 예언서야 선지서야?

'예언자'와 '선지자'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언과 삶을 기록한 책들을 부르는 이름은 '예언자의 글들'이라고 해서 '예언서'로 부르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라는 이름이 예언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라고 할 때, '예'(預)는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을 기록한 책이 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그리고 '예언서'라는 말이 예언자들의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보이는 표현이므로 우리말로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이 책들을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여호수아-사사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들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묘사하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이주하였지만, 결국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창세기)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출애굽기), 예배를 세우는 율법을 주시고(레위기), 광야를 걸으며 새 땅 가나안에 살 자격을 갖추도록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민수기), 그리고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하나님(신명기)께서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할 지도자의 자질: 모세의 권위를 이어 받은 자, 전쟁의 맨 앞에 서는 자, 열 두 지파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자, 율법과 언약을 지키는 자)와 ②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정복준비 1–5장	**가나안 정복** 6–12장	**땅 분배** 13–21장	**여호수아의 연설** 22–24장

사사기는 정복 전쟁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열 두지파 공동체를 이끄는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모세-여호수아의 권위를 이어받은 지도자 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여호수아를 그 모델로 삼았다면,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열 두 명의 사사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스스로 왕이 되어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의 타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보따리 구조'의 형태를 이룹니다. 삿 1:1-3:6은 사사기의 도입부이며 동시에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3:7-16:31은 열두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1-21:25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이들이 정치-군사 지도자인 사사들 뿐 아니라, 레위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시사 고발적인 성격의 사사기는 그 마지막도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며 어떤 희망의 실마리도 주지 않은 채 끝을 냅니다.

	사사 이름	지파	성경구절	압제나라/왕	압제	재임
1	옷니엘	유다	3:7–11	메소포다미아 / 구산리사다임	8	40
2	에훗	베냐민	3:12–30	(모압 에글론 (암몬,아말렉	18	80
3	삼갈	?	3:31	블레셋		
4	드보라	베냐민	4:1–5:31	가나안 야빈	20	40
5	기드온	므낫세	6:1–8:28	(미디안(아말렉	7	40
6	돌라	잇사갈	10:1–2		23	23
7	야일	갓? 길르앗	10:3–5		22	22
8	입다	갓? 길르앗	10:6–12:7	(암몬(블레셋	18	6
9	입산	유다	12:8–10		7	7
10	엘론	스불론	12:11–12		10	10
11	압돈	?	12:13–15		8	8
12	삼손	단	13:1–16:31	블레셋	40	20

5. 사무엘-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는 상하로 나뉘어져 4개의 책처럼 보이지만, '왕국기'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책으로 읽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 왕국 시대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사울의 때에 이르러 불완전한 모습이기는 하였지만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으며, 다윗-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그 제도가 안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고, 북쪽 10개 지파가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 남쪽 2개 지파가 세운 나라를 '유다' 왕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왕	통치년도	열왕기상	역대기하	왕	통치년도	열왕기상	역대기하
르호보암	931–913	11:42–14:31	9:31–12:16	여로보암	931–910	11:26–14:20	9:29–13:22
아비야	913–911	14:31–15:8	13:1–22	나답	910–909	15:25–28	
아사	911–870	15:8–24	14:1–16:14	바아사	909–886	15:27–16:7	16:1–6
여호사밧	873–848	22:41–50	17:1–20:37	엘라	886–885	16:6–14	
		열왕기하		시므리	885	16:9–20	

유다				이스라엘			
여호람	853–841	8:16–24	21:1–20	오므리	885–875	16:15–28	
아하시야	841	8:24–9:29	22:1–9	아합	874–853	16:28–22:40	18:1–34
아달랴	841–835	11:1–20	22:1–23:21	아하시야	853–852	22:40–이하	20:35–37
요아스	835–796	11:1–12:21	22:10–24:27			열왕기하	
아마샤	796–767	14:1–20	25:1–28	여호람	852–841	3:1–9:25	22:5–7
아자리야	792–740	15:1–7	26:1–28	예후	841–814	9:1–10:36	22:7–12
요담	750–732	15:32–38	27:1–9	여호아하스	814–798	13:1–9	
아하스	735–716	16:1–20	28:1–27	여호아스	798–782	13:10–14:16	25:17–24
히스기야	716–687	18:1–20:21	29:1–32:33	여로보암II	793–753	14:23–29	
므낫세	697–643	21:1–18	33:1–20	스가랴	753–752	14:29–15:12	
아몬	643–641	21:19–26	33:21–25	살룸	752	15:10–15	
요시야	641–609	23:31–33	36:1–4	므나헴	752–742	15:14–22	
여호아하스	609	23:31–33	36:1–4	브가히야	742–740	15:22–26	
여호야김	609–598	23:34–24:5	36:5–7	베가	752–731	15:27–31	28:5–8
여호야긴	598–597	24:6–16	36:8–10	호세아	731–722	15:30–17:6	
시드기야	597–586	24:17–25:30	36:11–21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던가? 그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다시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을 떠났던가?를 묘사하는 역사 반성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유다왕국의 멸망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 어떤 왕도 완벽한 왕(지도자)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열왕기는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혹독한 심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고발하는 고발장입니다. 더불어 그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예언적 지침서가 역사의 옷을 입은 사무엘–열왕기입니다.

6. 이사야–말라기

예언자들을 활동예언자와 문서예언자로 나눕니다. 활동예언자는 문서예언자 이전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자면, 드보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성경에는 소개되었지만,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없는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언자의 행적을 전해 주는 이야기보다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글로 기록하여 예언자의 이름이 붙여진 두루마리가 있는 예언자들을 문서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문서예언자들의 두루마리들을 대예언서 소예언서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분류는 기록된 두루마리의 양을 기준으로 나눈 구분입니다. 이사야(66장), 예레미야(52장), 에스겔(48장)은 그 내용이 매우 길고 방대하지만, 상대적으로 호세아(14장), 요엘(3장), 아모스(9장), 오바댜(1장), 요나(4장), 미가(7장), 나훔(3장), 하박국(3장), 스바냐(3), 학개(2장), 스가랴(14장), 말라기(4장)는 짧습니

다. 그래서 편의상 짧은 예언 두루마리들을 소예언서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문서예언자에 속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활동시대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까지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예언과 예언 속의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합니다.

시대	문서예언자들
이스라엘 멸망(기원전 722년)의 시기	아모스, 호세아
유다의 멸망(기원전 586년) 전후시기	제1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기	에스겔, 제2이사야
페르시아(고레스의 칙령 이후, 기원전 538년) 시대	제3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바댜, 요나, 요엘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 586년을 전후로 하여 유다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정치적인 내부 문제들과 종교적인 타락 뿐 아니라, 패권 국가들인 앗수르와 바벨론, 이집트와의 국제관계라는 외적인 요인들이 서로 뒤엉켜 어느 길을 선택해야하는가의 갈등의 상황이 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로 연결되는 예언자들의 예언 배경입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그 시대만 다를 뿐,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의 예언 메세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십계명의 첫 계명)라는 것입니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빚어진 주인–종으로서의 외교 계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이방신들을 숭배해야했습니다. 주인삼은 나라의 신을 종된 나라가 그들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당시의 국제외교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지 않았고, 정치 외교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예언자가 선포하고자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점령 세력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했습니다. 그것을 묵시라고 부릅니다.

성문서

'성문서'라는 말은 '거룩한 글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글들을 '케투빔'(כתובים)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순하게 '기록들' 또는 '기록된 글들'이라는 의미이지만, 구약성경과 각 두루마리에 관련된 분류와 연구들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케투빔'을 '하기오그라피아'(αγιογραφία)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거룩한 (사람들의) 글들'입니다. 이 전통이 우리말로 번역에 영향을 주어 '거룩한 글들'이라는 '성문서'가 된 것입니다.

성문서로 분류되는 성경은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애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크게 세개의 유형으로 그 범주를 분류합니다.

진리의 책	시편, 욥기, 잠언
다섯 두루마리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그 외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1. 진리의 책: 시편, 욥기, 잠언

시편, 욥기, 잠언을 '진리의 책'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책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책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이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시편들이 노래로 불려졌다는 증거만은 아닙니다. 운율은 고대사회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암송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0개의 시편은 시와 노래이며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시편은 다섯개의 책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제1권 시편 1–41편	**제2권** 시편 42–72편	**제3권** 시편 73–89편	**제4권** 시편 90–106편	**제5권** 시편 107–150편

이렇게 시편을 다섯권으로 나누는 전통은 기원후 4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예배 때는 일 년에 한번씩 율법서를 완독하는데,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후 300년 사이 거의 500여년간 시편이 율법서와 함께 회당에서 읽혀졌기 때문에 생겨난 구분의 전통입니다. 시편의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은 울고 싶은 일, 억울한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등 참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이렇게 다양한 정황에서 기도하는 시편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①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해야할 이유라는 것과 ②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기도이자 노래인 시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

양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여 잡으려는 신앙의 삶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을 통해 시편을 기도하는 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삶의 진리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엮어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루 읽기 시작한 때는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이후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욥기가 품고 있는 주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밝혀보면, ①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② 전통적인 신앙만이 올바른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욥기는 고통이 무엇인가 정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받는 이를 대하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대답합니다(욥과 친구들의 대화). 고통이 보다듬고 화해하고 위로해야할 대상이지 판단하고 비난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전통적인 신앙만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준 지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상대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세상은 '고난 VS 축복'(전통적인 신앙 방식)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공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가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혹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행복해져라 기쁨을 찾으라고 충고하는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 역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모든 것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서로를 돌보는 돌보는 삶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의 목적은 훈련과 훈계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간결한 문장으로 가르칩니다. 좀 더 쉽게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오랜 시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통일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그 충고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②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온 헬레니즘 문화에서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 지혜가 다만 수단이 아니라 인격체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살아 움직이는 지혜처럼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2. 다섯 두루마리들: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섯 두루마리들(히. 메길롯)은 유대인의 명절에 회당에서 읽는 책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르면 유월절이 첫째달 14일이므로 유월절부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의 순서로 다섯 두루마리들을 읽습니다. 아가는 유월절 안식일에 읽고, 룻기는 칠칠절 아침에 율법서를 읽기 전에 읽습니다. 애가는 유대인 달력으로 아브(Av)월 9일(성전이 멸망한 날)에 읽고, 전도서는 수장절 안식일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읽습니다.

두루마리	읽는 때	주제
아 가	유월절 기간 중 안식일	광야로 떠나는 여정이 하나님과의 밀월 여행이라는 신앙의 고백
룻 기	칠칠절 아침	세우고 채워야할 것은 곡식 창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고백
애 가	아브월 아홉번째 날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전 도 서	수장절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감사만을 바라보라는 고백
에 스 더	부림절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과 해방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고백

목동과 여인의 구구절절한 사랑 노래인 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 40년이 하나님과의 밀월 여행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서막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안식일에 아가서를 읽으며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신랑을 쫓아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칠칠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오미 가족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문제는 무너진 가문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회복은 단지 혈통으로서의 자녀 생산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무너진 고엘(구원자) 제도의 회복이었습니다. 룻기는 ①진정한 영웅은 그 혈통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며(룻) ②무너진 거룩한 고엘 제도(율법)를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칠칠절에 이스라엘의 삶의 창고에 쌓아 들여 놓아야할 것은 곡식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애통한 노래'라는 의미의 애가는 우연하게도 이 두루마리의 히브리식 이름 '에이카'(איכה)와 그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에이카'는 '아!'라는 탄식 또는 '어찌하여!'(how)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비극 앞에서 탄식하는 절규가 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성전을 지켜 보아야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 두루마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날(아브월 9일)에 예레미야의 애가를 읽으며 두 역사적

인 비극이 같은 날짜라는 고백으로 애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때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등에서 볼 수 있는 '알파벳 노래'형식으로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노래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다섯개의 애가는 다만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그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수장절(초막절, 장막절)에 읽는 두루마리입니다. 수장절(초막절)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즐기는 날이면서, 동시에 여름 과일을 수확하고 풍요를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역설적이게도 '헛되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는 이 즐거운 날에 염세적인 허무함을 반복하여 노래하는 것일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스라엘 공동체)이 품고있는 '욕망의 허무'를 말합니다. 풍성히 창고에 쌓여 있는 한 해의 결실을 보면서도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욕망하며 그것에 집착하면 주어진 것 마저 허무해집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탈출하였으나 여전히 희망과 기쁨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입니다. 전도서는 지금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읽는 두루마리입니다. 에스더라는 두루마리 자체가 '부림'(히. 푸림 פורים)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약 성경 정경화 과정에서 에스더서를 정경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랍비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힘겨워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 그 외: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다니엘서가 전통적인 성경 구분에서 예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 예언 문학의 형식을 보이지 않고, 이야기의 전개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해석이 주된 흐름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독특하게도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그리스어 구약성경 칠십인역에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율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②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와 같은 바벨론의 왕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꿈 해석에는 이들의 제국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을 뛰어 넘어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었던 것이 라틴어 성경의 영향으로 15세기에 이르러 둘로 나뉘어 진 성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1-6장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재건	에스라 7-10 예루살렘의 개혁과 에스라의 활동	느헤미야 1-7 장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느헤미야 8-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운동

에스라-느헤미야는 표면적으로 유다의 혈통적 순수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느헤미야 두루마리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느헤미야 두루마리는 '순수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일은 순결한 신앙을 가진 이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역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구약성경의 구분에서는 전기예언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서에 분류됩니다. 이미 전기예언서에는 열왕기가 있기도 하려니와 전통적으로 역대기를 열왕기의 해설서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현재 기독교의 성경구분에서는 역대기가 독자적인 역사 기록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는 다르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권위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다보니 역대기는 주로 성전과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실행한 다윗과 솔로몬 위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세 개의 단원으로 구약성경을 개론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두루마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주제와 의도들을 매우 집약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그러나 쉬운 말로 성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의 홈페이지 www.biblia.co.il 과 팟캐스트 / 팟빵 / YOUTUBE의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를 참조하시면 쉽게 재미있게, 그러나 깊이 있게 성경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